Syngenta, 코스트 3억달러 감축!

구조조정 위해 스위스 농약공장 폐쇄 … 2003년 매출은 6% 증가

Syngenta가 스위스 Scheweizerhalle 소재 농약공장을 폐쇄하는 한편 다른 다수의 공장을 폐쇄하고 임원을 감축하는 등 또 한차례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2008년까지 연평균 3억달러의 코스트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3년 수익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Syngenta의 2003년 EBITDA는 매출액이 66억달러로 6% 증가한데 힘입어 12억달러로 역시 6% 증가했다. 환율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매출은 1%, EBITDA는 4% 증가했다. 코스트 감축은 5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구조조정은 제조와 공급체인 코스트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농화학제품 생산을 서유럽과 북미의 성과가 저조한 공장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인디아의 Santa Monica 및 중국 Nantong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또한 구조조정 계획은 유럽 외부로부터 보다 저렴한 원자재를 수급하는 것에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6년까지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2/3를 완성할 계획이다.

Syngenta는 2007년 말까지 폐쇄할 예정인 스위스 Schweizerhalle 공장 소재 종업원 127명과 노사협상을 시작했다. 현재는 농약 화합물과 활성원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공장을 폐쇄하면 생산량은 줄어드나 효율은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Syngenta는 2005년 1/4분기까지 스위스 Monthey 공장도 염소와 염소 유도제품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다. 다만, Monthey 공장을 폐쇄하지는 않고 공장 노동자 54명은 다른 직무로 전환 배치할 방침이다.

최근의 구조조정은 Syngenta가 2000년 설립될 당시 4년 동안 매년 6억2500만달러의 비용을 감축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로 연구와 기술개발 활동비용 절감을 통해 2004년 말까지 비용감축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할 계획이다.

Syngenta는 2003년 하반기에 호황을 맞은 중남미 및 경기가 활성화된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 지역이 호조를 보였지만 유럽과 아시아 시장은 침체돼 부진했다.

Syngenta는 앞으로 3년 동안 주주들에게 8억달러를 배당할 방침이다.

<Chemical Journal 2004/03/23>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